

일본의 양계업

산란계

계란 공정경쟁 규정 작성

계란관계단체로 조직된 중앙계란규격거래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2005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구한 「브랜드란 표시의 적정화」에 대응하여 책정한 일본산계란 공정경쟁 규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운영위원회에서 공정경쟁 규정을 각 기구단체에서 재검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정신청을 하고 이를 받아 들여 소비자 대표를 포함한 공청회를 열어 심사하고 규정안을 운영위원회가 관보에 고시하여 시행하게 되는 데 고시 시기는 금년 가을 이후쯤으로 예상된다.

일본산 계란의 공정경쟁 규정안은 농림수산성 규격이나 식품위생법, JAS법으로 정해진 명칭이나 내용량, 상미기간, 보존방법, 원산지명의 표시, 영양강화란으로는 성분대비 자료의 의무화 이외에도, 특정용어의 사용기준(1)사양환경에 관한 표시, (2)특정병원체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의 표시, (3)닭이나 계사 등의 안전·위생대책에 관한 표시, (4)비유전자변형사료의 사용이나 저장 및 운송 과정에서의 농약 미사용 표시, (5)원산지 표시(6)그 밖의 표시금지 용어)을 정하여 브랜드란은 이 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 공정경쟁규정에 의해 적정하게 표시한 사업자는 「공정」을 표시할 수 있다. 한편 표시의 합리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 등의 2년간 보존이나 공정경쟁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부당표시의 금지, 위반사업자의 벌칙규정 등이 들어 있다(계명신문 발췌).



윤 병 선

한경대 GRC 전임연구원/농학박사

산란용 토종닭 경제성과 난질 향상이 개량 목표

산란용 토종닭은 산란율 84%(+1%), 난중 63g, 일산란량 53g(+1g), 시산 145일령(-2일), 사료요구율 2.1(-0.1)을 개량목표로 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는 (1)일산란량, 사료요구율 등의 개선에 노력하여 종합적으로 경제성을 높이며, (2)소비·유통에 요구에 대응하는 난각강도, 난각색, 신선도, 육·혈반을 개량하고, (3)육성율이나 생존율에 대해서는 질병에 대항하는 유전적인 강건성 부여, 사료·위생관리의 개선, (4)산란초기의 난중증가에 노력하면서 산란지속성이 높은 산란계를 작출하는데 노력하기로 하였다(계명신문 발췌).

집란기의 파란방지 기술 개량

도요오(東洋)시스템(주)은 직립케이지용 집란기의 파란을 방지하는 「파란방지 장치」를 개발하여 4월부터 국내 판매용 직립식케이지용 집란기에 설치하면서 제휴사인 살멧사에 이 기술을 역수출하기로 하였다. 3년전 파란 억제하는 직립식 케이지용 집란기 「뉴 에스캐레이터」를 발매하였었다. 그러나 계분벨트 가동시 산란을 시작한 경우 계란을 상하로 이송하는 2개의 안전바 사이에 작은 계란이 들어가 콘베어 위로 계란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량연구에 돌입하였었다.

이 회사에서는 계란이 콘베어 위로 나오지 않는 현상이 일어날 때에 계란의 하부를 순간적으로 가볍게 누르는 파란방지 장치를 개발하여 부드럽게 집란할 수 있게 되어 산란초기의 작은 계란과 환우 후 난각이 약해진 계란까지 닭 사육기간 동안 파란이 없는 집란기 제작을 실현하였었다(계명신문 발췌).



목 계

일본산 닭고기 축제 개최

일본식조협회는 2004년에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에 의해 감소한 일본산 닭고기 소비회복을 위하여 전국 주요 도시에서 「일본산 닭고기 축제」를 개최하였다.

도오쿄(東京)지역의 시장과 전문판매점에서 실시한 튀김 닭고기 시식·판매 행사에는 아침 일찍부터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개시시간을 3시간 앞당긴 10시부터 시작하여 점심시간 전에는 준비한 날개고기가 바닥이 나는 등 성황을 이루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일본산 닭고기의 좋은 점을 홍보하는 팸플릿 등을 배포하였다. 이 밖에도 지역별로 일본산 닭고기 소비에 관한 세미나 개최, 소비자들에게 일본산 닭고기의 장점인 신선, 안심, 건강함을 호소하였다(계명신문 발췌).

샤보 전국품평회

일본 샤보보존협회는 지난 4월 도오쿄(東京)에서 제 67회 샤보 전국품평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품평회에서는 전국 각 회원(육종가)이 자랑하는 샤보 90점이 출품되었다.

체중, 벼슬, 고기수염, 꼬리 등 15항목에 대하여 한 마리씩 세밀하게 심사하여 종합우승을 비롯한 31명이 수상하였다. 샤보는 일본닭의 일종인데 1931년 정부로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일본 샤보보존협회는 에도(江戸)문화에서 발생한 예술이라고도 불리는 샤보를 보존하는 단체로서 체형이 작지만 멋있는 은 닭으로 키우는 장소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계명신문 발췌).

태국 닭고기 관세 인하

4월중의 포괄적인 합의를 목표로 하는 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재휴협정(EPA)체결교섭의 커다란 테두리가 마련되었다. 일본과 태국과의 교섭 중에서 중요 농산물 품목의 하나인 닭고기에 대해서 일본식조협회가 관세폐지에서 예외로 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한편, 태국의 닭고기 수출업체도 더 이상의 관세인하는 불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의하면 양국의 교섭에서 발골 닭고기 관세를 현행 11.9%에서 미발골 대퇴부 수준인 8.5%로, 닭고기조제품을 현행 6%에서 3%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되었다고 보도하였다. 농림수산성의 가격 인하는 결정된 것이 아니지만, 닭고기 관세를 인하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해온 식조협회 관계자는 교섭의 추이를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EPA나 FTA의 교섭은 다른 나라와의 사이에도 계속되고 있고 그 중에서 닭고기는 상대국의 관심품목 중의 하나로 되어 있다. 2004년에는 필리핀과의 대합의로 협정이 발효된 첫해에는 3,000톤에서 5년째에는 7,000톤의 닭고기 관세율을 현행 11.9%에서 8.5%로 인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계명신문 발췌).

일본과 태국간 FTA 교섭에 항의

태국과 교섭중인 FTA에서 관세인하 예외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과 태국간의 닭고기 관세인하에 합의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양국 업계단체의 의향을 무시하며, 관세철폐, 인하반대를 요구하는 소비자들과 생산자 74만명의 뜻에 반하는 것이므로 깊은 유감을 느끼며 식조협의 요구의 완전한 실시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하였다(식조협회 발췌).